표현과 사고는 하나이다

윤세남(전 카네기연구소 컨설팅 본부장) 선생님은 발표 워크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해 보는 것'이 좋은 발표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을 2인 1조로 나누어 서로 자기소개를 해 보게 하였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발표자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 발표자의 좋은 생각이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려면 사고력뿐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사고력, 글쓰기 능력처럼 의사소통 능력 역시 학습과 연습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글쓰기교실 · 학습지원부)는 5월 12일부터 3주에 걸쳐 학부생을 위한 발표와 토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과거에는 발표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만 진행되었지만 이번 워크숍에서는 발표 능력과 함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분야에 진출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었다. 이런 평가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 교육 특별히 대학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였다. 정운찬 총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양질의 교양 교육에서 찾았다. 교양 교육은 학생들의 글쓰기, 말하기,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위 수준의 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기존의 대학 교양교육은 이런 교양 교육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번 워크숍이 현재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을 개선하는 준비 단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발표와 토론 워크숍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이론 강의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과정에서는 배운 이론을 직접 연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 워크숍에서는 발표의 기본구조에 관한 강연이 있고, 학생들은 비디오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발표 기법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워크숍에서는 학술적 토론과 토론의 구조, 토론자의 역할, 화법에 관한 이론 강연이 있었다. 실습 시간에는 학생들이 비디오로 실제 토론을 시청하면서 토론 과정을 평가하고, "스크린 쿼터제 허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실제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윤세남 선생님(전 카네기연구소 컨설팅 본부장)이 발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허경호 선생님(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 토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글쓰기교실 jkim30@snu.ac.kr
학습지원부 hwbio@snu.ac.kr

토론 워크숍에서 허경호 교수(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부)가 '학술적 토론'의 성격과 방법을 강연하고 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